

“기름때 묻은 옷, 집에 안 가져가도 되니 좋아요”

여수산단에 전남 첫 작업복 세탁소 22일 개소

1만4000여명 대상 한 벌당 500원에 수거·세탁·배송 ‘원스톱’ 영암군, 7월 대불산단에 개소 예정...정부 차원 지원 목소리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지워지지 않는 기름 얼룩 등이 묻은 노동자 작업복을 모아 세탁해주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지난 2021년 광주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 ‘광클리닝’이 문을 연 이후 2년여 만에 여수 국가산업단지 및 영암 대불산업단지에서도 잇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을 앞두고 있어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여수시는 오는 22일 여수시 주상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여수산단행복세탁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수산단행복세탁소는 노동자 작업복 전용 세탁소다.

기름때, 유해물질 등이 묻어있는 작업복은 일반 세탁소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가정용 세탁기로 돌

릴 시 유해물질이 가족들의 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전용 세탁소가 만들어졌다.

행복세탁소는 335㎡의 부지에 새로 건립됐고 내부에는 세탁기 3대(100kg 1대, 50kg 2대)와 건조기 4대(100kg 2대, 50kg 2대)가 설치된다.

하루 944벌의 작업복을 세탁하고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여수시의 설명이다.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여수산단 내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여기에 근무하는 1만4000여명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다. 세탁 가격은 상·하의 1벌당 기본 500원이며, 동복은 1000원이다.

사업장에서 작업복 세탁을 신청하면, 센터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복을 수거한 뒤 세탁·건조해 다시 작업장으로 배송하는 ‘원스톱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집에서 유해물질·기름·분진 등이 묻은 옷을 세탁하지 않도록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개설하게 됐다”며 “홍보 차원에서 한달 정도 무료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광주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시작했다. 하남산단에 설치된 ‘광클리닝’은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클리닝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만 9000여벌의 작업복을 세탁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000여벌에 비해 60% 증가한 수치다.

세탁소를 이용하는 업체도 2021년 82개사에서 올해 2월까지 177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불산단이 위치한 영암군도 오는 7월 영암군 삼호읍 산단 내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세탁기 3대(100kg 1대, 50kg 2대), 건조기 3대(100kg 3대)가 투입되며, 중소기업 노동자 위주로 세탁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탁물 수거와 세탁·건조, 배송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하루 최대 600~700벌 정도 작업복 세탁이 가능한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오는 22일 문을 여는 여수산단행복세탁소. <여수시 제공>



기름때가 묻어 가정에서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 <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기관과 협력해 노동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복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노동자 세탁소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처음 세탁소를 만들자고 주장했을 때 국가가 왜 작업복을 세탁해줘야 하며 반발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며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지원없이 운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펭귄마을에 가면... 광주시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을 찾은 방문객이 8일 광주남부경찰이 제작한 관광지 내 교통안전벽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에 엠폭스 주의보...환자 첫 발생

광주에서 엠폭스(원숭이두창)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전남에서 엠폭스 첫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어 광주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오며 따라 엠폭스 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주시는 “수포 증상이 있는 내국인 환자 A씨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의심환자로 신고돼 지난 5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최초 증상이 발현됐으며 생식기에 반점과 수포가 발생해 보건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증상 발현 시점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전담 병상에서 격리 치료중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A씨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중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13일 엠폭스 위기단계가 주의로 격상된 이후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엠폭스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8일 현재 국내 엠폭스 누적환자는 총 60명이다. 이날 현재 광주에서는 총 14건의 의심신고가 있었고 이중 의사환자로 분류된 4건 중 1건이 양성 판정됐다.

엠폭스 임상증상은 ▲생식기 주변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이나 발진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근육통 등이다.

감염경로는 확진환자의 발진 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성접촉, 확진자의 침·구·식기 등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다. /정병호 기자 jusbh@

“진정한 사죄 없는 한·일정상회담은 ‘빈손회담’”

시민단체 혹평 쏟아내

시민단체가 7일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혹평을 쏟아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단체)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호응’은 커녕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한 ‘빈손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이에 대해 ‘교활한 물 타기 발언’이라며 “일하게 된” 사람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인지 단순한 생계형 노동자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모호한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가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지칭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밀도 끝도 없는 말장난 같은 유감 표명을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한 윤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데 대해 “도대체 당신이 수호해야 할 주권은 어느 나라 주권이며 당신이 지켜야 할 국익은 어느 나라 국익이냐”며 따져 물었다.

단체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선 “한일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日 반핵운동가,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 알린다

오늘 여수서 강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반핵시민 운동가가 직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인 반핵시민운동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의 공동대표인 반 히데유키의 강연이 9일 오후 열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실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여수 시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여수시립도서관에서 진행

된다.

특히 이번 강연은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내용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다른 방사성 물질도 먹이사슬을 타고 축적돼 인류 전체와 자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